



총지중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회향



▲ 총지중 불사(서울 총지사)

불교총지중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가 4월 8일 전국의 사원에서 회향한다. 지난 2월 18일 입재한 전국의 총지중 교도들은 각 서원당에서 49일 동안 스승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한 불공에 한 치의 혼들림도 없이 입했다.

불교총지중만의 특별한 의례로 진행되는 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사』로 그 기원은 멀리 신라 명랑법사에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음흉야호사"이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금 우리는

혼란과 분열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9일간의 진호국가 불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이라는 큰 물줄기에 모두가 하나되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진호국가불사로 나라의 분열을 막고 용맹 정진한 교도들에게 부처님의 가지가 충만 하기를 서원했다.

이 진언불사출처는 종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이 불사의 주요 서원사항은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이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봉행한다. 지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추가되었다. 하반기 49일 불사는 5월 28일 입재하여 7월 15일까지 봉행한다.

총기 46년 스승 정기교육 시행

한국불교사 등 총 3과목 16학점 이수



▲ 총기 46년 스승 정기교육(통리원 반야실)

불교 총지중 중앙교육원은 총기 46년 스승정기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서울·경인교구, 대구·경북교구 스승을

대상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3월 13일부터 21일 까지 통리원 반야실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 정례화 된 스승 정기교육은 총기 45년 10월 26일 제136회 승단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스승의 자질 향상과 교화방편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년 간 총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교육은 불교학(중앙교육원장 화령), 한국불교사(사회부장 지정), 중국 불교사(밀행사주교 도원)로 구성됐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스승정기교육은 교화 현장에서 불교학 전반에 관한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스승님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1박 2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스승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며 이번 교육의 의의를 전했다.

총지사=김호랑기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제20차 대회 예비회의

3월 23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에서 개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제20차 대회 예비회의가 3월 23일 제주 중문호텔 특별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예비회의에는 한국 측은 월도 스님(중단협 사무총장, 친태종 총무부장)을 단장으로 인선 정사(중단협 상임이사, 총지중 통리원장)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스님들과 중국 측 단장으로 명생스님(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등 10명의 대표단, 일본 측 단장으로 타케카쿠초(일중환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0차 한국대회를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 분은사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3국 교류위원회, 세계평화기원위원회, 학술강연회와 문화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번 한국대회는 본대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간 중일

3국 불교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전 개최 및 3국 불교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교류 발전을 모색키 위하여 주제를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발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불교전통인 발우공양과 축하 문화공연으로 대규모 전국불교합창단이 참여하는 '보현행원'을 공연 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회담에 참석한 한국 측 상임이사 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번 예비회담은 한중일 불교교류 본대회 20주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인 불교의 허심 탄회한 교류와 우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전했다. 대표단들은 제주 명소관광과 약



▲ 제20차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예비회의

천사 참배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면안내

- 1면 총기46년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 2면 불교계 주요소식
- 3면 총지중 종단 소식
- 4면 지상설법
- 5면 밀교경전읽기, 불교 옛보기
- 6면 충청-전라 중심 사원 대전 만보사
- 7면 만보사 신형체험
- 8면 밀교연재
- 9면 종립동해중학교 소식
- 10면 비주얼 총전
- 11면 문화산책

4월 주요일정

- 4월 월초불공 : 4월 3일 - 4월 9일
- 원의회, 유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 4월 17일
- 중앙중의회 : 4월 17일
- 제89회 총지중 춘계강공 : 4월 18일 - 4월 20일
- 불기 2561년 연등회 : 4월 29일(동국대학교 운동장)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절두절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제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마지도록 합니다.

제89회 춘계 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께서 수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개강식 - 총기 46년 4월 18일
회향식 - 총기 46년 4월 20일
- 장소 : 총지중 통리원
- 대상 : 총지중 전국 사원 승직자

중립 동해중학교 제50회 입학식

신희재 군 외 6개 학급 154명 입학



▲ 신입생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 신희재군과 입학생 154명

중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50회 입학식이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6개 학급 154명이 입학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학교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학생대표 신희재군이 학생 생활지표를 잘 실천하여 동해중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입학 선서를 했다.

탁상달 교장은 환영사에서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오늘 제50회 자랑스러운 우리 동해의 교육가족이 되는 신입생 여러분

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며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1학년 때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특성화고교 및 특목고 등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학교 자체 면접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철저한 생활지도와 개별 밀착형 인성지도로 학교폭력을 원천 봉쇄하고 폭력이 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학교를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가 가장 소통이 잘되는 사랑의 학교를 표방합니다.”며 학교 운영 방안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입학식에서는 배치고사 우수 학생 7명에게 교직원 장학금을 수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간의 상호인사, 선생님 소개, 교가제창을 끝으로 마쳤다.

중립 동해중학교는 1968년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를 교훈으로 17,8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 최고의 명문 사립 중학교이다.

원정대성사 유묵 디지털 작업 완료

비밀의궤, 수행일기, 법설 등 전산화

중조 원정 대성사의 비밀의궤, 수행일기, 법설 등 총지종의 교의와 사상을 담은 유묵이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총지종 통리원 교정부(부장 범일 정사)는 약 1년간의 작업을 거쳐 중조 원정 대성사의 유묵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작업 목록은 원정 교의강설, 법규집원고, 세계 시(在世時) 공문서, 교사 및 사신, 불사법요,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 상장례 및 49재 천도 불사법요, 초창기 람자관 사진, 원정종조유품사진, 응화성전, 중

비로자나 부처님 가지아래

실지사 청정지 보살 구순 잔치



실지사 교도 중 월초 불공을 비롯한 모든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상수보살인 청정지 보살의 구순 잔치가 3월 12일 자성 일 법회 후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원에 서 열렸다.

장남 도민 이명환 각자(부림회 총무)와 큰 자부 여심지 홍정숙 보살(신정회 총무)의 가족들은 청정지 보살 구순을 사원의 교도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가족들과 상의해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도 청정지 보살 가족의 삶 자체가 바로 불교의 실천이며, 총지종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청정지 보살은 짧은 시절 진각중에 입교하여 총지종의 입교 개종과 동시에 실지사의 교도로 한평생을 진인 염송 수행에 용맹 정진한 교도이다. 보살님의 신심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져 지금은 증손자까지 4대가 사원에 나오는 총지가족이다.

장남 도민 이명환 각자는 “어머님의 건강 한 생활의 힘은 진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실지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경해 주신 은혜를 오늘 작은 공양으로 나누고자 합니다”며 어머니의 구순 잔치를 사원에서 하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중립 동해중학교 장학금 기탁자 감사패 증정

지공, 선도원 기로스승, 졸업생 등 7명

중립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는 3월 2일 2017학년도 개학식과 입학식을 맞아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7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총지종 기로스승 지공 정사, 선도원 전수, 졸업생 김태문, 김범수, 박수호, 김희철, 정각사 자비회장 배일숙 님 등 7분에게 증정된 감사패는 학교재단과 교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제작했다.

감사패에는 “동해중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뒷바라지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해중학교 발전과 학교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기에 그런 뜻을 높이 기려 전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며 장학금 기탁자들의 칭송했다.

중립 동해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60%가 장학금을 받는다. 부산에서 가장 장학금 수혜자가 많은 학교이다. 이런 자랑분을 바탕



▲ 기로스승 지공 정사 감사패

정각사 문화센터 봄학기 개강

다도, 스포츠댄스, 천 아트, 합창 등 개설



▲ 정각사 다도교실

부산 정각사 문화센터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2017년 봄학기를 개강했다. 다도, 스포츠댄스, 천 아트(한국화), 합창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과목들과 천 아트(한국화)부문을 추가하고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과목	시간	수강인원	내용
스포츠댄스	화요일 오후 2시	15명	- 춤을 통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합창	화요일 11시30분	42명	- 찬불가를 통한 심양고취 - 교구 및 부불연합회 음성공양
천아트(한국화)	수요일 2시	20명	- 천이나 옷에 사물을 그려 취미 활동
다도	금요일 1시	10명	- 다도를 통한 예절 교육 및 심신 안정

문의 051-552-7702

총기 46년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

서울·경인 및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회의 개최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지회장 김은숙)와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지회장 황은희)는 3월 15일 통리원 신정회 사무실과 3월 21일 부산 정각사 신정회실에서 각각 회의를 가졌다. 각 사원 신정회장 및 간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4월 봉축행사 지원의 건과 각 사원 교화 방편 개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총기 46년 신정회 주

마산 운천사 교도자녀 명문대 합격 이어져

박금자 고문 외손녀 이태림양 등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는 요즘 사원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운천사 교도 자녀들의 명문대 합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금자 고문 회장의 외손녀 이태림 양(19)이 캐나다 비서주 UBC대학교 의과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박지영 보살 손자 최용주 군(20)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입학했다. 또한 오연임 보살 자제 박진홍 양(20)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에 박보경 보살 자제 이태남 군(20)이 마산대학교 안경공학과

인터넷 충지정보 www.chongjinews.com

법음과 함께 자비를 전하는 불교총지종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



지휘자
박윤규

반주자
김옥희

단장
이상록

총무
최영혜

총무
최정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명륜동) 단원모집 상담전화 051-552-7901

지상 설법

두 가지 진리와 근기에 맞는 마음 공부



만보사 주교 승원

칼럼 지혜의 눈

새 시대 불교, 집단지성 발휘하자

“무유정법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인류 문제 해결에 집단지성 발휘해야”

21세기 문명의 발달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일찍이 <권력이동>과 <부의 미래> 등에서 지적한 혁명적인 변화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막초입에 든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예측 불가능한 조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는 그야말로 무유정법(無有定法)의 입장에서 늘 새롭게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수천 년 전부터 제시하고 실천해 온 이같은 조망이 좀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절인연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 인류 내면에 갖춰진 자비의 마음이 누대에 걸쳐 공감의 역사를 펼쳐왔다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조망도 그 중 하나다. 리프킨은 최근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인류 역사의 오랜 공감 전통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가 에너지-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따라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를 거쳐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불교는 불교의 언어로써만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언어로 조망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불교가 나아가갈 방향으로 시대불교, 중생불교, 실천불교, 세계불교를 제시한 바 있다. 시대불교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중생불교란 불교를 수요자에 알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실천불교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끝으로 세계불교란 인류의 지혜를 모아 지구촌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혼돈으로 얼룩진 세상에 지혜와 자비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지성(集團叡性)을 발휘해야 한다.

불교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가설(假設)이다. 그래서 불교는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면이고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불교적 조망은 종교적 수행을 함으로써 생각 뿐 아니라 몸 전체로 체화되면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인격을 탄생시킨다. 그러한 새로운 인격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
사람들은 각자의 근기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도 달라
부처님께서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치고 마음을 착하게 쓰도록
중생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습니다
”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수행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행복이란 마음이 다섯 가지 장애를 벗어나 바른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섯 가지 장애란 1)탐욕 2)성냄 3)번뇌로 마음이 들뜨는 것 4)졸음 5)의심입니다. (불교총전 P424) 불교에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여 1)탐욕은 다섯 가지 물감을 풀은 물 2)분노는 부글부글 끓는 물 3)홍분과 회한은 파도치는 물 4)해태와 혼침은 이끼 낀 물 5)의심은 흐린 흙탕물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맑은 물과 같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상지상근의 사람들(보살)과 요말(饒末)의 중생은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진리, 이제(二諦)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진리란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로서 진제는 절대적인 진리, 가장 수승한 진리라 하여 승의제(勝義諦)라고 하고 속제는 세속적인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상에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종조법설집에 진제를 깨쳐야 하는 출세간지와 세속의 진리를 이는 세간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만한 머느리 욕야를 교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욕야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5종류의 착한 아내와 2종류의 악독한 아내에 대해 설법하시고 착한 아내는 일가친척과 친신들이 보호하며 죽은 후에도 천상에 나서 장수와 쾌락을 누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석존께서 출가 수행자들과의 문답에서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연기하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윤회에 대해서도 주체가 없으므로 윤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니라서 습관적으로 악몽을 꾸니다. 그때마다 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잘 일러주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보살은 악몽(惡夢)이든 선몽(善夢)이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꿈을 깨는 방법으로 벗어납니다. 종조님께서서는 이것을 '상지상근 사람들은 삼밀관행으로 보리심의 대용기약을 얻는 것만으로서 일체 번뇌를 극복하여 능히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체가 마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행복도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아 모두가 각자의 근기에 맞는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항상 어두운 길에서 헤메는 사람은 선지식을 찾아 자주 물어보고 자기가 지혜 있는 참스승이 되어서 원만 청정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여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이익과 인락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조법설집P166)

우리 총지종에 진제와 속제를 두루 꿰뚫고 무한의 방편으로 못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여 제도·해탈케 하는 불보살님이 많이 나투시기를 기대하며 삼보(三寶)전에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비유를 들면 중생은 악몽을 꾸면서 괴롭다고 하니 꿈 해몽을 좋게 해주면 마음을 바꿔 용기를 얻지만 괴로움의 뿌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서 습관적으로 악몽을 꾸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근기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도 달라 부처님께서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치고 마음을 착하게 쓰도록 중생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총전에 급고독장자의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면 중생은 악몽을 꾸면서 괴롭다고 하니 꿈 해몽을 좋게 해주면 마음을 바꿔 용기를 얻지만 괴로움의 뿌리를 끊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행복이 마음에 달렸으니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8정도의 정념(正念)으로 인도말로 '사띠'라고 하며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하는데 항상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 밖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에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주 자주 마음 살피는 것을 습관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복과 불행을 만들기에 언제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영원한 행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P108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마장이라고 부르는 어려움을 겪을 때

<불교 총지종 진언밀교의 소의경전>
종조 원정 대성사와 환당 대종사의 번역과 편찬으로 지어진 『대승밀교 최고의 경전』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구입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대승장엄보왕경』과 밀교의 관음신앙

『대승장엄보왕경』개요

불교의 구경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생노병사 등의 인생의 현실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춰서 고뇌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수행에는 난행문과 이행문의 두 가지 길이 있다. 난행문이 자력적 성격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라면 이행문은 타력적 성격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구제의 구제력에 의지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길이다. 중생들을 고난과 역난에서 건지겠다는 불-보살님의 중생구제의 본원력을 믿고 이에 의지하는 타력적 성격의 신앙으로는 정도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미륵신앙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으로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케 하려는 서원을 세운 관음보살의 본원력과 위신력을 믿고

의지하는 관음신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관음신앙은 중생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관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를 고난과 역난의 두려움에서 해탈케 하여 준다고 믿는 신앙이다. 대승경전에서 관음보살은 구고구난의 대서원을 세운 보살이며 보문시현의 위신력을 지닌 보살임을 강조하고 있다.

관음신앙의 대표적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관음보살은 위신력을 갖추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역난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관음보살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널리 신앙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밀교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육도중생구제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을 설하고, 세존께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과 육자대명다라니의 의미와 지송공덕에 대하여 밝힌 경전으로, 관음보살과 밀교적 요소인 육자대명다라니가 결합하여, 변화된 밀교의 관음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을 통하여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에 대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교도기고

세월의 이삭

김홍균(충지사 교도, 개포초 교장 역임)

문명이란 것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기계 속에 파묻혀 버렸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인간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 옛날 기계소리 대신 사람소리가 들리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사람냄새가 나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아직은 있을 것이다.

그런 시절의 가슴 시린 이삭들을 주워 모아보았다.

기저귀

딸내미가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

-어, 착하지, 우리 아기 아내가 딸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기저귀를 갈아주며 어머니께서도 행복해하셨겠지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딸내미에게서 옛날 아내의 모습을 본다. 또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기저귀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 추운 날에도 기저귀 빨래는 미룰 수 없어 아내

편프가 있는 우물가로 가서 기저귀를 빨곤 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께서는 빨래터가 있는 사냇가로 가셨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기저귀가 있겠지. 지금도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참 편리한 세상이다. 모든 빨래를 세탁기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도 일회용 기저귀는 아예 한번만 쓰고 버린다. 편리한 만큼 세상은 쓰레기로 덮여갈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일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된다는 생각은 구닥다리 늙은이의 좁은 소견일까?

제 자식 귀엽고 소중한 마음이야 고금이 어찌 다 르라만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식들은 언제나 어린 모습 그대로여서 손주를 키워가는 모습이 서투게만 느껴지는데 요즘 새댁들은 인터넷에서 탐색해낸 정보와는 다른 부모들의 간섭이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나이 든 부모의 충고가 현자의 지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늙은이의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이리라.

그래, 생각이 다르면 또 어찌랴. 내리사랑이라고 제 자식 예뻐서 죽고 못사는 딸내미 모습이 바로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변함없는 어머니의 모습인 것을.

불/교/옛/보/기 신라의 오방(五方), 오불(五佛)



▲ 경주 동천동 사방불 탑신석 東川洞 四方佛 塔身石

총지중은 49일 불공 중에는 진호국 가불사를 한다. 이때 만다라관을 할 때 오방의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른다. 북쪽을 향하여 정좌하고 “중앙에 비로자나불, 동방에 아촉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불공성취불을 관하고(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잡밀계통의 중국 밀교를 삼국시대부터 수용하게 되었다. 신라에서는 7세기 초부터 잡밀계통이 전래되었고, 8세기에 접어

들면서 순밀계통이 전래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밀교는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민중 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라에 최초로 밀교를 전한 승려로 안흥(安弘, 600년 진평왕 22년)은 중국승려 두 사람과 함께 귀국하여 황룡사(黃龍寺)에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栴檀香火光妙女經)』을 번역하고 640년(선덕여왕 9년) 만신도량을 베풀었다. 비슷한 시기의 명랑(明朗)은 632년 당나라로 가서 3

년 동안 밀교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자신의 집을 금광사(金光寺)로 고쳐 이곳을 중심으로 밀교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방불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8세기 초에 번역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과 『불공전삭신변진인경(不空罽索神變眞言經)』, 『일자불정운왕경(一字佛頂輪王經)』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밀교경전을 가지고온 신라승려 명효(明曉, 700년 당에서

귀국, 해통계통의 밀교를 전성한 것으로 추정)는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의하면 “천후(天后)시대 성력(聖曆) 3년(700) 경자(庚子) 3월에 신라국 승려 명효가 밀리 당나라 법화(法化)를 관할하고 돌아가려 할 때 그는 총지문(總持門)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마음을 두었던 터라 마침내 저 변두리 나라 사람들도 다같이 이런 비밀한 교의를 듣게 하기 위하여 이 진언을 번역하여 주기를 은근히 청하자 이에 무침(無諱)은 불수기사(佛授記寺)의 번경원(翻經院)에서 『불공전삭다라니경』 1부를 번역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명효가 8세기 초 신라로 귀국할 때 총지중에 뜻을 두고 이 무침이 번역한 『불공전삭다라니경』을 비롯한 진언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8세기 초에 오방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벽룡사주교법일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②

梅 蘭 菊 竹

1. 잎그리기



- 1) ~ (일필기수)
- 2) ~ % (이필불안)
- 3) ~ ~ % (삼필파봉안)

- 일필이 길면 이필은 짧게, 일필이 짧으면 이필은 길게하여 길이가 같지 않게 할 것

- ① ~ ③ : 일필에서 삼필까지 순서는 지킬 것
- ④ ~ ⑥ : 사필에서 칠필 혹은 구필까지 그리는 순서는 달라도 됨

※ 덕광정사는 울산 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매일매일 즐거운 축제 여행 - 사계절 축제와 함께 '놀자'

4월 | April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잔란했던 고대왕국의 숨결
4.6 ~ 4.9

영암 왕인 문화제
백제 문화전수자의 파릇한 기운
4.6 ~ 4.9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닷길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산책
4.26 ~ 4.29

광안리 어방축제
전통어촌에서 펼쳐지는 봄의 향연
4.28 ~ 4.30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
4.29 ~ 5.7

5월 | May



담양 대나무 축제
향기로운 명품대숲의 초대
5.2 ~ 5.7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건강을 위한 선택과 집중
5.3 ~ 5.7

보성 다향 대축제
싱그럽게 퍼지는 다원의 신록
5.3 ~ 5.7

울산 옹기 축제
우리가 몰랐던 옹기촌 이야기
5.4 ~ 5.7

춘천 마음 축제
몸짓이 전하는 짜릿한 감동
5.21 ~ 5.28

7월 | July



포항 국제 불빛 축제
해와 달의 고장에서 담아낸 5대 불빛
7.26 ~ 7.30

경남진 장흥 물 축제
청정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
7.28 ~ 8.3

강진 청차 축제
천년의 신비를 찾아서
7.29 ~ 8.6

봉화 은어 축제
내성천에서 더위 밀어내기
7.29 ~ 8.5

부여 서동 연꽃축제
10만평 연꽃단지의 황홀한 풍경
7월중

8월 | August



통영 한산대첩 축제
강주안에 재현된 역사의 현장
8.11 ~ 8.15

무주 반딧불 축제
대자연 속 생명의 빛
8.26 ~ 9.3

괴산 고추 축제
나른한 여름의 화끈한 즐거움
8.31 ~ 9.3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열정으로 하나되는 록페스티벌
8월중

9월 | September



평창 호성 문화제
'메밀꽃 필 무렵' 옛보기
9.8 ~ 9.17

산청 한방 약초축제
지리산이 품은 보석
9.15 ~ 9.24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거리마다 넘치는 정열과 흥
9.20 ~ 9.24

수원 화성 문화제
정조의 얼이 깃든 전통문화관광축제
9.21 ~ 9.24

안성맞춤 남시당 바우덕이 축제
시름마져 날리는 유쾌한 공연
9.27 ~ 10.2



김기자의 사/원/탐/방

달라이 라마 친필 만다라를 봉안한 충청·전라 총지종 중심 사원 『대전 만보사』

진언 밀교 전통을 바탕으로 노래교실, 산악회 등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고 활기찬 교화의 전기를 펼치고 있는 대전 만보사는 네팔의 만다라학교 카르상 라마가 조성하고 달라이 라마 존자가 친필 축원한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양계 만다라를 봉안한 진언 법계궁으로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보사의역사

만보사는 원정 대성사에서 입교 개종한 총기 2년 1월 16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전세방에 불단 불사를 봉행하고 교화의 문을 열고, 초대 주교로 계당 정사와 교회사승 총지종 전수가 부임했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신교도들의 한결같은 서원으로 총기 8년 4월 17일 대전시 삼성동 276의 13번지 대지 85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대전선교부를 '만보사'로 중창한다. 지금의 만보사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152-4 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4평의 신축 서원당과 공양처를 신축하고 2층의 요사 및 공양간 건물을 완공하여 총기 21년 9월 29일에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만보사는 총지종 전국 사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합창단을 창단하고, 전국불교합창경연대회에서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만보사의 교화 전통은 대전 백월사, 청주 혜정사, 괴산 중원사, 전주 흥국사, 광주 범방사로 이어져 충청, 전라교구의 중심 사원으로 자리 매김 했다.

대전 선교부 창설과 동시에 교회사승으로 부임해 24년을 봉직하면서 만보사의 기틀을 마련한 총지종 기교사를 비롯해 법공 기교승, 공덕성 기교승, 지성 기교승, 승효재 전수를 거쳐 지금은 승원 정사와 묘원화 전수가 젊음을 바탕으로 노래교실, 산악회 등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고 활기찬 교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달라이라마존자가친필 축원한양계만다라와 득락전

만보사에는 네팔의 만다라학교 카르상 라마가 조성하고 달라이 라마 존자가 친필

축원한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양계 만다라와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가 직접 친필 축원한 양계만다라는 국내 유일본이다.

만보사 만다라는 종단의 다른 사원과는 달리 모든 교도들이 봉안 서원을 하고, 만다라의 조성과 이운 등 모든 과정에 동참하여 이루어낸 불사이다. 또한 많은 난관에도 만다라 봉안을 이루어 낸 기교승 총지종 전수의 집념도 만보사에 회자되고 있다.

만다라와 함께 봉안 낙성한 득락전에는 아미타삼존을 모시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중요한 전당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밀교 사원의 낮은 분위기를 친근하게 만들어 주어 교화의 새로운 방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정회

만보사 신정회(회장 민순분, 총무 이주영)는 사원의 모든 불사와 행사를 이끌어 가는 실행단체이다. 신정회는 실행의 공동체이자 가족 공동체이다. 회원 상호간의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한다.

신정회는 새해불공, 상, 하반기 49일 불공, 봉축 행사, 방생법회, 관불, 지성일 공양준비 등 모든 행사와 사원 대소사의 적극 동참한다.

신정회 민순분 회장은 "만보사 신정회는 수십 년을 함께 불공한 수행의 동반자이자, 서로를 경책하는 동반자입니다. 특히 회원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비를 같이 걱정하고, 함께 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며 만보사의 신정회의 분위기를 말했다.

신정회 회원들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교화의 불꽃이 다시 일어 만보사의 서원당이 가득 차고, 정통밀교 총지종이 대전의 모든 불자들이 즉신성불의 대도행에 동참하도록 서원하고 불공 정진하는 것이다.

단월회

만보사 각자들의 신행 봉사 단체는 단월회(회장 최규영)다. 대부분의 각자들은 매주 자성일에 보살님과 함께 사원을 찾는다. 불공 후에는 함께 모여 사원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비한다. 봉축 행사 때는 연등 만들기와 설치에 팔을 걷어 붙인다.

단월회 회장 최규영 각자는 "단월회는 만보사의 외적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손길이 가기 어려운 일들과 봉축 행사, 관불, 상향례 등의 어려운 일들을 회원들이 마음을 내어 일을 합니다. 또한 서로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만보사 뿐 만 아니라 종단의 모든 행사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에도 활동을 전개 해 나갈것입니다"며 단월회의 친목과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노래교실

노래교실(회장 이주자)은 매주 1차례 만보사 서원당에서 수업을 연다. 묘원화 전수의 지도로 20여명의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총지종 의식곡, 찬불가, 대중가요, 동요, 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래를 배우고 부르다 보면 정해진 시간이 아쉽다.

만보사는 원래 총지종 사원 합창단을 최초로 창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50여명의 단원과 최고의 지휘자 반주자의 지도 아래

전국찬불가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 전통을 노래교실이 이어가고 있다.

노래교실을 지도하는 묘원화 전수는 "노래교실에 동참하시는 교도 및 지역분자들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양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생활의 스트레스 떨쳐버리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회장 이주자 보살은 "묘원화 전수님의 지도로 찬불가를 배우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만보사의 각종 불사에는 아직은 미흡한 실력이지만 합창단으로 의식곡을 공양하고 있습니다"며 노래를 통해 즐거운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만보사 '아름다운산악회'

만보사의 신행단체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산악회(회장 최옥순)'는 산행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다진다.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의 기운 쏟아지는 이번 3월에는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학원농장으로 관불을 겸한 산행을 간다.

'아름다운 산악회' 회장 최옥순 보살은 "만보사 단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모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고,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며 산악회의 분위기를 말했다.

산악회는 만보사 신도들에게 일상을 떠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준비 중이다.

취재=편집장 김종열



▲ 만보사 전경



▲ 만보사 만다라 봉안가지불사



▲ 만보사 봉안 양계만다라에 축원하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 만보사 초창기 삼성동 방한칸의 관음서 원당



▲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던 만보사 합창단



▲ 새해불공 칠정진 회향



▲ 아름다운 산악회



▲ 만보사 방생법회



▲ 만보사 합창단



▲ 노래교실 니들이

백순이 보살님 이야기

“미움과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회향”

기본적으로 미움과 원망은 그 대상인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크게 해치는 행위입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다.

남편은 7년을 중풍으로 누워있었다. 처음 병수발을 할 때만 해도 '내가 잘 해내리라', 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생은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남편의 상태는 호전은 커녕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나는 나의 생을 살며 동시에 남편의 생도 살아야 했고 또, 우리 가족의 생도 살아야 했다.

생활은 고단했다. 몸이 힘든 날이면 몸이 힘든 만큼, 가만히 누워있는 당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끊절로 늘어났다. 병수발을 드는 것도 싫었고,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지쳤다. 괴로움은 견딜 수 없이 늘어나기만 했고, 기쁨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절에 불공을 가니 정사님께서 얼굴에 묻어내는 고통을 알아 보셨다. “보살님,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주셨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간의 괴로움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모두 토해냈다. 정사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셨다.

“보살님이 괴로운 것은 각자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이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 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 속에 이런 미움과 원망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하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거북하기도 했다. 마치

“처음엔 감사할 것도 없었고, 귀에다 이야길 하는 것은 더 어색했다. 하지만 억지로 무엇이든 찾아내려 하니, 신기하게도 감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을 낫기 위해 먹는 쓰디 쓴 약 같은 답이었다.

쓴 약은 쉬이 삼켜지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나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후에 전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다.

남편에게 감사한 점을 하루에 세 개씩 찾아서 남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렇게 실천 한 날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 후 감사 일지를 적으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말로, 소리 내어 표현하라고 하셨다.

처음엔 감사할 것도 없었고, 귀에다 이야길 하는 것은 더 어색했다. 하지만 억지로 무엇이든 찾아내려 하니, 신기하게도 감사

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으니 감사했다. 당신이 이렇게라도 누워있어 내가 '서방 없는 년'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니 감사했다. 입으로 감사함의 씨앗을 내뿜자,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뿌리를 내렸다. 그 마음은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눈물로 지워냈다.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은 자양분이 되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은 날로 쑥쑥 자랐다.

작년 추석, 더 이상 남편을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모시기로 했다. 장기요양 등급 관정이 나는 날을 며칠 앞두고 저녁 공양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남편이 나를 보며 '어이, 어이', 하고 손짓



을 하는 게 보였다. 내가 놀래 남편 곁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눈빛으로, 눈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소', 하고 내가 그 눈빛을 읽어내자마자 큰 숨을 두어 번 내쉬고는 바로 옆방에 들어가셨다.

참으로 이상했다. 내 눈 앞에서 남편이 죽었고, 나는 혼자 남겨졌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랜 기간 병고로 고통이 턱턱지들어 있던 얼굴은 어느새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변해 있었다.

자식들과 49재를 올리고, 얼마 전 백일 불공도 회향이 끝났다.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 부처님을 만나 미움과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그들을 지워내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할 뿐이다.

김희순 보살님 이야기

“내가 갈 길은 닦아서 간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부부란 찾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는 특이하니 그랬습니다.

조실부모한 남편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가까운 친척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등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늘 작은 것이라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8남매의 장녀로 다섯 남동생과 두 여동생을 다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여장부라는 말을 들으면서 대범한 마음으로 통을 크게 가지고사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처럼 원래도 상궁인 남편과 저인데, 남편이 풍에 걸리자 그 간극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하루 병든 남편을 수발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원래의 성격에 보태어 더욱 더 소심해지고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늘 먹던 밥과 국에도 투정을 일삼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약을 먹이는 일만 해도 여간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약통을 던지기도 하고 밥상을 엎기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전수님께 고민을 털어놓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 입장에서라도 여

“불공은 무리한 고집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편안하게 가게끔 해주는 의미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집안 대소사부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대범하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재 방식이 그동안 얼마나 미뚝 참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미안해지기도 하면서 남편의 끼니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마음이 약간이나마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병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수님께서는 49일 불공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49일 불공을 하면 남편의 병이 깨끗하게 나를 줄만 알았던 저는 달력에 날짜를 헤아려가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 반복된 49일 불공에도 남편의 병 증세는 여전했습니다. 나올 것 같다가도 재발을 거듭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투덜대자 전수님께서는 천일불공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천일불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일불공이 끝나고 동시에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불공이 완치로 가는 길이 될 줄만 믿었던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애정 어린 불공도 건너뛰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남편의 49재를 마치자 어느 정도 마음이 안



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공을 하던 중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아픈 몸으로 억지로 생을 연장하려 하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드린 불공은 무리한 고집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편안하게 가게끔 해주는 의미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병수발을 하다가 시간을 내어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처님 안에서 위안과 깨달음을 얻었듯이, 보살님들도 부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포장재 전문업체 WD 원동포장

저희업체는

- ▶ 제품 포장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항상 고객님의 최고의 서비스만을 선사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 ▶ 고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대표 박근태 (대전 만보사 단월회) 고객센터 042-284-1471

제품 포장에 관한 모든 것! 특성 맞춤 제작 전문!



소형·대형·농산물 특성 맞춤 제작 전문

취/급/품/목

- ▶ 각종 BOX 제조, 판매 ▶ 끈, 마대
▶ 플라스틱 BOX ▶ 하이프라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장
법천사주교 법경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4)

침묵과 밀교의 삼밀수행

침묵은 금(金)인가 은(銀)인가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며,
침묵도 은이요, 웅변도 금이다.

‘침묵은 금(金)이요, 웅변은 은(銀)이다’라는 말이 있다. 영국의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의 말이다.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 보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은(銀) 보다 금(金)이 훨씬 더 값이 나가는 것이므로, 침묵이 웅변 보다 나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대에 잠시 금보다 은이 더 귀한 때가 있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금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기에 그렇게 비유되었다. 이에 침묵이 최상이라고 말하는 명언들이 많다. 셰익스피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라고 했고, 보바르는 ‘사람은 말을 하기 보다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현충 더 빛이 난다’고 했다. 세네카는 ‘침묵할 줄 모르는 자는 이야기 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 침묵을 금(金)으로 여기는 명언들이다.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기 말이 신뢰받지 못할까 두려워 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거절 당하는 것이 두렵고, 공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 또한 반대 의견이 두려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경우이다. 말을 잘못 했다가는 모처럼 얻은 지위를 잃을까 봐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한쪽으로 쏠려 날까 두려워서 말을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말을 했잖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말하기가 싫어서, 상대가 미워서, 입씨름 하기 싫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싫어서, 피곤해서, 생각이 없어서, 사이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은 최선인가, 차선인가

과연 침묵만이 최상이고 최선일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침묵은 은(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금이라 하지 않고 은이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침묵을 최상, 최선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

이다. 그 침묵은 차선(次善)에 불과한 것으로, 침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침묵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침묵하고 있어서 안된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침묵을 아예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침묵은 멸시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침묵은 자신없는 사람이 택하는 가장 안전한 방책이다’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너도나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패를 예감했다면서 뒤늦게 한마디씩 했다.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소.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이오.” 국무위원들이 대답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서 모두가 찬성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된다. 첫째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당연히 모두가 찬성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반대하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다. 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괜히 나 혼자 반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묵의 폐해를 엿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과연 침묵만이 올바른 것인가. 침묵은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침묵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셈이다. 그러므로 침묵이 반드시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환언하면, 침묵은 찬성과 반대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묵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양면성에 의해 잘못된 판단으로 케네디처럼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침묵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작각과 그릇된 판단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는 항상 반대와 비난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침묵 그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 말이 없다가 속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침묵 보다 웅변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은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침묵과 웅변은 득(得)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독(毒)이 될 수도 있으며, 실(實)이 될 수도 있고, 또 화(禍)가 될 수도 있다. 침묵과 웅변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국정농단의 배경에는 이러한 침묵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불교의 수행에도 침묵이 있다.
묵언정진이다.
구입을 짓지 아니하고,
니를 살피는 수행이다.

불교의 수행에도 침묵이 있다. 바로 묵언정진이다.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묵언을 통해 구입을 짓지 아니하고, 나를 살필 수 있다. 나의 인품을 살피고 관찰하는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에 위빠싸나도 있다. 자기 자신의 안과 바깥 경

계를 살피고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또 침묵으로 일관하는 선수행법에는 간화선(看話禪)과 목조선(默照禪)이 있다.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수행법이며, 달마대사로부터 당나라의 조주선사, 송나라의 대혜종고 선사로 이어진 중국 임제종의 선불교 수행법이다. 이와 달리 목조선은 고요히 앉아서 좌선만하는 수행법으로 중국 조동종에서 선양된 좌선수행법이다. 묵묵히 좌선하는 이들의 선수행은 모두 침묵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밀교에도 침묵의 수행이 있다
관법과 진언염송이다.

밀교의 수행에도 침묵이 있다. 바로 밀교의 관법(觀法)과 금강염송(金剛念誦)·삼마지염송(三摩地念誦) 등이다. 관법(觀法)이란 어떤 특정대상을 마음 속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금강염송은 진언을 외울 때 입을 다물고 혀만 움직이는 것이고,

삼마지염송은 자기 몸에 진언을 새기는 것을 관하는 염송이다. 이 수행법을 삼밀수행이라 한다.

삼밀이란 입으로 진언을 외우는 구밀(口密), 몸과 손으로 결인을 하는 신밀(身密), 뜻으로 본존과 종자 등 특정 대상을 관하는 의밀(意密)을 말한다. 이 셋을 합하여 행하는 수행이 삼밀수행이다. 그 가운데 의밀의 관법은 본존이나 진언, 종자, 불상, 소리, 문자, 뜻 등을 관하는 것이고, 구밀의 진언염송은 진언을 소리를 내서 외우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외우는 것 등을 말한다.

관법과 금강염송·삼마지염송은 침묵을 기본으로 한다. 조용한 가운데 한 대상에 집중하여 관하는 것이 밀교의 관법이며 진언을 소리내지 않고 외우는 것이 금강염송·삼마지염송이다. 따라서 관법과 염송은 침묵을 필요로 하므로 말을 해서 안된다. 서원당(誓願堂- 총지종의 법당)에서 떠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조용하게 염송하고 침묵 속에서 관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구입을 짓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기도와 불공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침묵과 웅변을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이다.



권오길 제면소와 함께하는 즉석에서 끓여먹는 도마손국수



MENU		
칼국수	냉모밀	도마보쌈
온국수	판모밀	왕만두
냉국수	비빔모밀	감자물만두
비빔국수	동치미모밀	

예약문의 | 031-949-2249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132

신학기 대대적인 리모델링

신학기 학습 환경 개선

종립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은 2017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겨울방학동안 노후 교육 시설인 도서관, 수학교과교실, 가사실습실, 위클레스 보건실, 진로진도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문을 열었다.

도서관인 동해책마루는 동해중학교의 심장으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서를 함양하는 장서가 15,000권 확보되어 있는 자랑스런 정보 제공의 장이다.

기존 서가를 2단으로 확장하고 신간도서 및 열람 서가도 추가로 설치했다. 화소가 낮은 빔프로젝트도 이번에 새로 최고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장서도 다시 정리하여 많이 읽는 도서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극대화 했다.

수학교과교실 리모델링은 포근하고 따뜻한 책상과 길상, 소집단과 수준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개의 이동용 소집단, 및 최첨단 전자 칠판을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교체완료 했다.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를 펼치는 공간으로 신바람이 나게 공부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동해중학교 학생 진로와 진학 상담활동의 메카인 진로 진학 활동실도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

개별 상담실과 교사 집무실, 강의실 앞면 전



▲ 동해책마루

면 서가 설치, 진로 활동 자료실, 냉난방 설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수업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

동해중학교 숙원사업이었던 가사실습실 겸 조리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이 드디어 완성 됐다.

전면 학습 칠판, 최측면 생크대 6개, 우측면 인텍선 3개, 자료 보관함 10면, 냉장고 교체, 실습대와 의자 전면 교체 등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학생 건강 생활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고된 상담을 전담하는 공간인 위

클레스도 쾌적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자료실, 포대 상담실을 갖추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상담할 수 있도록 즐겨 찾 아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실도 리모델링 완공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집무실, 병원 수준의 병상 시스템, 위생적인 약제 보관함, 청결한 세안대, 비밀 보장의 상담실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학생 건강 생활을 지도한다.

동해중학교교장탁상달



▲ 수학교실



▲ 보건실



▲ 가사실습실



<특별기고>

계속되는 문화재 도난

벽룡사 주교 법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새(國璽)중 황제지보(제1618-2호)와 유서지보(제1618-3호), 준명지보(제1618-4호)는 2014년 미국정부로부터 돌려받았다.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국새를 환수했다는 사실로 봤을 때 국새중 상당수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일제가 약탈한 국새 3점을 비롯해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기에 만들어진 국새 29점과 함께 어보(御寶) 47점을 도난 문화재로 등록했다.

불법 해외반출 문화재 중 2012년 10월 문화재청도법 김모씨 등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계와 문화재 전문가들은 관음상을 훔쳐서 가져온 것인 만큼 다시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음보살상 복장에서 고려충신왕원년(1330년) 서산부석사라는 기록물이 나왔다. 서산부석사측은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주인인 부석사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3년 2월 26일 대전지법은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반환금지 가처분신청을 결정했다. 지법은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대마도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국가는 부석사가 위임하는 집합관에게 불상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불상반환문제는 당분간 보류된 상태에 들어갔다.

3년 기한의 가처분 효력기간 내 한일 양측에서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속도로 남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불교문화재도난백서 1984-2015」 증보판에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도난 불교 문화재의 환수 기반을 마련하고, 경매시장의 유통 방식을 위해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발간된 「불교문화재도난백서 1984-1999」에는 287점을 증보판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도난된 153점이 추가되었다.

시급한 것은 불교문화재 도난예방책 마련과 도난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도난 및 해외반출 불교문화재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조속한 환수를 위해 경찰청과 문화재청간의 교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궁궐 속 연회장 경회루,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4~10월 경회루 특별관람

사전에 예약제, 1회 최대 100명 관람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우경준)는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특별관람'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시행한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이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사방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 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인왕산의 모습이 펼쳐져 마

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은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들길 수 있다.

3월 29일 오전 10시 부터 예약제로 운영되며,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10명까지 예약 가능), 외국인인 전화(☎02-3700-3904, 3905)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관람 횟수는 주중 매일 3회(10시, 14시, 16시), 주말 매일 4회(10시, 11시, 14시, 16시)이고, 관람 소요시간은 30~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100명(내국인 80명, 외국인 20명)이다.

가뭄 피해 줄이기 메뉴얼 3단계

봄철 가뭄의 원인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강수량과 강수 유형의 변화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적 변동이 심해서 최근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가뭄은 물의 순환 균형을 깨뜨리고, 모내기 때를 늦추는 등 농사의 기반을 흔들며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뭄피해줄이기메뉴얼3단계

1. 모내기 전, 물의공회전을 줄이자. 모내기 이전의 논에는 최소 100mm 이상의 농업용수를 채워 놓는데, 봄철 맑은

날에는 약 6~7mm 정도가 증발한다. 물을 대지 않은 논은 증발량이 하루 1mm 내외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이다. 이 기간을 하루만 줄어도 1ha당 50톤의 물을 아낄 수 있는 만큼, 담수(물을 미리 채워 놓는)는 자칫 '공회전'이 될 수 있다.

2. 고효율물절약, 점적관수를 활용하자. 점적관수는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물과 양분을 작물의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부터 이용해온 고풍관개(고랑을 이용한 물 공급 시설)의 효율은 50%, 스프링클러는 70% 내외지

만 점적관수의 효율은 90% 이상으로, 고랑 관개보다 약 2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물 절약 방법이다.

3. 가뭄때뚱뚱, 내건성작물을 재배하자.

내건성 작물이란 건조한 토양에 강한 작물로 수수, 참깨, 발버, 콩 등이 있다. 이 작물들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가뭄을 견디는 특성이 있어서, 1ha당 1,000~1,500톤의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효과를 낸다. 특히 비에 비해 적은 물로도 잘 자라므로, 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배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생활속체크포인트 <양수기 점검은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모내기 전에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 점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좀 더 효율적으로 양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을 이웃들과 함께 모여 '양수기 AS의 날'을 여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WHY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

1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 TOP 20

2 다양한 분야 취업 가능

3 3無 자격증

정년 無, 평생직장 無, 임금저렴 無

독서지도사의 진로 및 활동 방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국 학교의 방과 후 보습 운영

방과후 코디네이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방과 후 수업 개설

아동복지시설, 문화센터, 공부방, 기타 구민회관 등 지방자치 단체의 방과 후 시설

방과 후 돌봄센터, 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공부방

학습지 선생님, 학원강사, 교습소 강사 활동

종교기관, 청소년회관 등에서 방과 후 아동교실 설치

누구나 탐내는 유망자격증 1순위

독서지도사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여 듣기·말하기·읽기 쓰기·생각하기 등을 지도하여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 지도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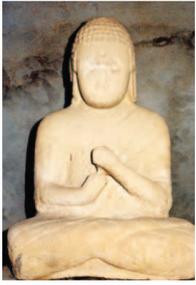
독서지도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독서지도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협회에 의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둘다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협회마다 등록금 운영규정은 서로 상이합니다.

자격증을 온라인만으로 취득하여도 효력은 동일하나요? 자격증의 효력을 갖추려면 국가지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각 협회의 자격변화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식등록된 협회의 온라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물로 보는 밀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04호
 명 칭 : 의성장춘리비로자나석불좌상
 (義城長春里毘盧舍那石佛坐像)
 시 대 : 고려시대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2길 118 (장춘리)



◀ 의성장춘리 비로자나석불좌상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에 있는 석조불상이다. 둥근 대좌(臺座)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두 눈은 깊게 파여져 있는 상태이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옷은 왼쪽 어깨를 드러낸 채 오른쪽 어깨에만 걸쳐 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4. 합장수(合掌手) 진언



그때 그시절

흥기7년 戊午(1978) 4월19日 水

회의명 : 제11회 중앙총회 및 제9회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

장소 : 통리원 대회의실

1. 성도절(成道節)을 양력(陽曆) 12월 24일에 행사하기로 결의
2. 우리 교의 인사법을 결정
 - 『성도합시다』·『성도하십시오』·『성도하겠습니다』로 성도를 권장
3. 10악참회(十惡懺悔)를 공덕성취(10선성취)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4. 산옹협동조합(단위조합)조직운영
 - 교도상호간의 경제협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기관으로써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칙하에 사업불교(事業佛敎)로 지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조직운영하기로 결정
5. 공식시간불사의례 통일함
 - ① 자성일이나 다른 날이나 첫 시간과 둘째시간 모두 7·21범으로 한다.
 - ② 자성일 첫 시간 서원진언은 5종진언(五鍾眞言)으로 하고 49일중에는 49일 결정진언(決定眞言)을 각각 7편씩 염송한다.
 - ③ 자성일 둘째시간과 기타일 첫째, 둘째시간은 자기서원진언으로 한다.
 - ④ 염송은 신입보살들의 수습을 위하여 의례와 공식진언은 모두 향마염송(降魔念誦)으로 한다.
 - ⑤ 공식시간의 실지염송(悉地念誦)은 모두 21회씩 한다.(금강염송)



내용참조: "불교총정" 타인에 대한 덕의편 572p-4



강남구 만트라빌 신축

TJ 태진 E&C

환경 친화적 시공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

건축시공계획부터 준공하여 입주하는 그날까지
 태진 E&C가 책임지고 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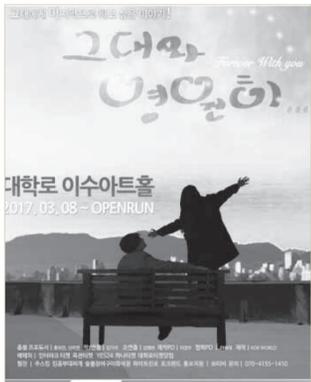
- 인테리어 • 건설공사 • 냉·난방 설비 • 소방기계 설비



삶과 죽음, 영원한 화두

죽음의 두려움 보다 살아남은 순간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평범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

연극 '그대와 영원히' 4월 30일까지 대학로 이수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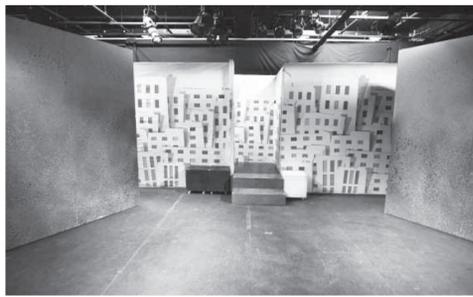
▲ 포스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은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도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싯다르타 태자가 고뇌했던 것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 추위에 죽은 듯 보이는 메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오르고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보며 생명의 순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죽음은 왜 고통스러울까. 혹자는 상실감을 말한다.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상실감이 고통을 준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항상 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깨달으며 상실감을 타파한다.

죽음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회피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뒤집어 말하면 삶에 대한 열망이다. 고타마 왕자가 죽은 사람을 보고 충격을 느낀 것은 이듬새에만 바라왔던 삶의 안정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곧 고통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이다. 열반으로 이르기 전



▲ 식물정수 시스템 실물

우리는 당장 당면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죽음을 다루는 연극 '그대와 영원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느 젊은 청년의 실화이다. 그렇다고 이 연극이 슬프거나 우울한 이야기는 아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유쾌하게 풀어가는 웃음과 감동의 작품.

제작진은 이 작품을 '죽음'이 우리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닌 불의의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면, 절망이나 포기하기 보다는 가족과 연인·친구가 있는 일상 속에서 유쾌한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기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그대와 영원히'는 주인공 진우의 이야기이다. 인테리어 설비공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진우. 아버지 종철이 매일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는 진우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삼겹살을 굽는 탓에 진우는 삼겹살 냄새가 조금 지겹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무려 10년을 홀로 키운 아들 진우는 종철에게 세상의 전부다.

그런 진우에게 아빠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면 하루 빨리 색칠감을 구해오라며 은

근질쩍 수지 얘기를 꺼내는 종철. 진우는 강한 부정을 하지만 이미 10년이나 일련단십이었던 수지에게 향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 결국 수지에게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은 진우.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병원에서 뇌종양이라는 청진벽력 같은 판정을 받는다. 진우는 자신을 걱정하는 친구 성진에게 되려 위로를 건네며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본의 아니게 약속을 바람 맞혀 버린 수지를 만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일토당도 않은 말을 뱉어 버린다. 한편 종철은 그림을 그리다 보험 계약 목적에 둔 혜경을 만나 티격태격하게 되고, 혜경은 보험왕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끈덕지게 종철에게 아티스트님이라 아부하며 들러붙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주인공 진우처럼, 이 이야기 역시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밝은 분위기와 워트 있는 상황으로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한다. 가볍고 흔한 사랑이 아닌, 이 시대 잃어버린 감수성을 일깨우는 연극이다.

죽음이 어둡고 무겁고 두려운 것이라기 보다, 어떻게 웰다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음. '그대와 영원히'는 밝고 코믹하게 보여 준다. 그러면서 한 줄기 흐르는 눈물은 죽음이 주는 무게를 지울 수 없는 중생의 업 때문이 아닐까.

연극 '그대와 영원히'는 2014년 11월 대학로 스타디움 뮤지컬로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80% 이상 기록했다.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를 연극 버전으로 리뉴얼한 이 작품은 초연 1달 만에 오픈런을 결정하고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된 진우가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좋아

하는 수지와 이별, 아버지와도 가슴시린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코믹하게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그대와 영원히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는 대사가 와닿는 연극이자 죽음에 대한 신파적인 감정을 풀어내지 않는 대신, 자연스러운 배우들의 연기에 관객이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연극 '그대와 영원히'.

4월 30일까지 대학로 이수아트홀에서 공연되는 연극 '그대와 영원히'. 주인공 진우 역에는 배우 이종대, 박현진, 양보현이 삼중 캐스팅 됐다. 수지 역에는 백연화, 정다운, 진세인이, 아빠 종철 역에는 황정용, 김성규, 최희정이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이번 2차 캐스팅에는 1차 프로덕션 멤버 최희정, 황정용, 김진만 배우를 포함한 새로운 멤버 박현진, 양보현, 이종대, 진세인, 정다운, 백연화, 김성규, 장주연, 민선경, 엄태현 트리플 캐스팅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거기에 1인9역을 맡아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변신의 귀재 성진 역에는 김진만 엄태현이 더블 캐스팅돼 극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러닝타임 90분으로 만 12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다.

웃고 울며 몸입하다보면 90분이 금방 흐르는 연극 '그대와 영원히'.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와 영원히'. 연극이 끝난 후, 관객들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당신은 삶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제작진이 제안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당신의 반쪽일 것입니다."

공연문의: 070-4155-1410

강지연구성작가

경기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국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에 건립된 전곡선사박물관은 유아·학생·군인·가족 등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2017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어린이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ASI(Archaeological Science Investigation) 고고학 과학 조사'는 전곡선사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교육·체험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고학을 테마로 '나도 고고학자', '똑딱똑딱 석기 만들기'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밖에도 박물관 실내외에서 사냥·채취, 움막집 짓기, 발굴·채취, 가족 자르기, 매듭 팔찌 만들기, 가족 옷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시 운영된다.

아이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15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단, 7월과 8월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물관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1박 2일 가족캠프'는 올해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1박 2일 가족캠프'는 가족이 박물관에서 캠핑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선사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캠프는 오는 3월 25일 열린다.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어린이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ASI(Archaeological Science Investigation) 고고학 과학 조사'는 전곡선사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교육·체험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고학을 테마로 '나도 고고학자', '똑딱똑딱 석기 만들기'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밖에도 박물관 실내외에서 사냥·채취, 움막집 짓기, 발굴·채취, 가족 자르기, 매듭 팔찌 만들기, 가족 옷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시 운영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시품 돋보기로 보고, 연필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보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를 운영한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는 청소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전시품을 활

용한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전시 감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전시 감상 꾸러미(탐험일지, 돋보기, 연필, 접이식 의자 등)를 들고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실을 탐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 교류의 흔적을 찾아 돋보기로 관찰하고 연필로 그려 보면서 전시품을 사진으로 남긴 활동사진을 모아 학습에 가사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급 단체(담당교사)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학교별 담당교사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완료해야 최종 참가학교로 확정된다.



▲ 식물정수 시스템 실물



천연염색체험

“봄날께 키우요!!!”

- 밝고 건강한 어린이
- 친구·가족·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표현하는 어린이
- 예의바르고 배려하는 어린이

■ 보육대상 만1세 ~ 만3세

■ 특색교육

- ★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기본한 통합적 발달을 위한 교육
- ★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숲교실 운영)
- ★ 그림책을 통한 관계중심의 인성교육

■ 건강식단

- ★ 깨끗하고 바른 먹거리 식재료

■ 우리원의 약속

- ★ 건강한 어린이
- ★ 지혜로운 어린이
- ★ 예의바른 어린이

서울시 청계산로 11길 7-12 포레스타7단지 708동 1층 | 교육상담 ☎ 070-7204-2030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

내가 원하는 모든 조명 기구와 방법을 만날 수 있는

“비비나 라이팅”



▲ 비비나 라이팅 대표 조윤호



▲ 회사 전경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채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구, 가전제품, 공간의 규모와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종류와 가지수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명이다. 전등이 달려있지 않은 공간은 없을 것이다.

조명이란 인위적 혹은 자연적 광선을 밝게 비추는 것을 말한다. 조명의 색과 기능은 너무나 다양하다. 흔히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과 백열전구부터 도서관, 병원, 카페, 레스토랑, 학교,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우리나라 조명 업계의 무서운 풍운아로 부상 중인 비비나 라이팅 조윤호 대표를 만났다. 만보사이주영 신정희 총무의 2남인 조대표는 충남대 해양학과를 나와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했다.

조윤호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너무나 재밌다. 군 복무 당시 휴가로 잠시 대전에 들러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의 전장에 달린 조명 등을 보고 저절로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길로 주변을 수소문해 전구를 도매하는 선배로부터 제품을 구하고, 근무지였던 진해와 창원 지역의 작은 상점들을 찾아다녔다. 직접 전구를 같이주고 하나둘씩 거래처를 늘려갔다. 처음에는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 싸늘한 반응에 자존심도 무척 상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타고난 뱃짱과 추진력으로 대전에서 조명기구 유통업을 시작했다.

손에 쥘 건 퇴직금 뿐이었다. 하지만 젊음을 무기로 하나둘 거래처를 개발하고, 취급하는 품목도 늘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만들고, 발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유통의 거품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조윤호 대표는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디자인 팀을 보강해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업을 해나간다. 물류센터에는 장애우 직원들도 고용하여, 간단한 창고 정리 및 AS 업무를 맡고 있다. 비비나 라이팅은 모두가 한 가족 같다. 서로가 서

로를 챙기고, 회사의 발전이 곧 내 가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을 해나간다.

비비나 라이팅의 사세는 지금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2015년 7월 대전 탄방동 본점을 열고 지금은 청주 아울렛, 포항 아울렛, 인천점, 전주점, 대구점, 의정부점, 광주점 등 전국에 대리점을 열었다. 요즘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DIY 조명부터 알전구에 이르기까지 조명에 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없다. 또한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테리어 업계의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윤호 대표는 최근 부산에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연구 생산 중인 품목은 인터넷과 가전기구가 결합한 사물인터넷 제품이다. 가정과 사업장의 조명을 핸드폰 어플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출시 할 예정이다. 고객이 생각하는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길고 긴 겨울은 끝나고 새봄이 돌아왔다. 올 봄 우리 집 혹은 우리 사무실 조명을 한번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조명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가족간의 화합과 업무 능력을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 지금 바로 인터넷 비비나 라이팅(vivina.co.kr)에 접속하여 새로운 조명의 세상을 맞아보자.

대전중구선화동 106-8
전화:1800-7344
이메일:bbled@hanmail.net
인터넷쇼핑몰:vivina.co.kr



LG Tele Com 대전 유천점
모든 통신사 문화 동양점

LG G6 출시! 구매 혜택!



- 혜택1 G6 살 때 60%만 내고, 바꿀 때 40% 보장! R클럽2
- 혜택2 매월 최대 44,000원 할인되는 U+ 가족무한사랑
- 혜택3 신한, KB국민카드로 최대 48만원 할인 혜택



휴대폰 및 정보통신 신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LG 유플러스 유천점에서 실속있게 구매하자!

남들보다 더 절약
스마트한 절약 방법

스마트한 절약 방법. 하나
멤버십 혜택
데이터 스페셜 A 요금제 이상 가입 시
VIP 등급 혜택 적용

스마트한 절약 방법. 둘
제휴카드 할인
매월 쓰시던 만큼만 그대로 쓰셔도
통신료가 자동 할인



동양정보통신 대표 임진혁
(대전 만보사 신정희장 민순분 장남)

최신폰을 가장 빠르게 만나고 바꾸는 곳! LG 유플러스 대전 유천점!